주정차 과태료 통지서 수억 들여 발송하는데 자치구들 반송 골머리

광주 반송율 30%나

재정난이 심각한 광주 지역 자치구들이 연간 수억원의 예산을 들여 발송하고 있는 주정차 위반 과태료 통지서의 반송 비율이 최고 30%에 육박해 곤욕을 치르고 있다.

12일 광주 5개 자치구에 따르면 지난 11월 말까지 '주정차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주정차 위반 과태료 납부고지서' 등의 등기우편 발송 건수는 ▲동구 1만8955건 ▲서구 11만3433건 ▲남구 3만9178건 ▲광산구 10만9704건 등 모두 24만5170건이다. 동구는 그동안 관련 예산이 부족해 올해 4월부터 등기 발송을 시작했고, 북구는 비용을 아끼기 위해 일반우편으로 발송하고 있다.

각 자치구는 매년 적게는 1억3000만원에서 많게는 2억4000여만원까지 우편발송예산을 책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가운데 ▲동구 5648건(29%) ▲서구 2만778건(18%) ▲남구 5900건(15%) ▲광산구 2만1961건(20%) 등 모두 5만4287건이 반송돼 자치구들이 난색을 표하고 있다.

유형별 반송 이유는 집에 사람이 없는 경우가 50%로 가장 많았고, 이사 후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24%, 차량주소지가 정확히 등록되지 않은 경우 16%, 대리 수령인이 전달을 하지 않은 경우가 8%로 나타났다.

특히, 과태료를 내지 않기위해 등기우편을 고의적으로 회피하는 '악질' 위반자들로 인해 어려움이 늘고 있다.

실제 한 자치구의 경우 지난해 11월에 적발된 A씨에게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물리기 위해 지난 1년 동안 사전통지서 1차례, 개별고지서 1차례, 독촉장 2차례 등 모두 4차례의 등기우편을 발송했고, 등기우편 반송시 일반우편을 4차례 발송했다.

등기우편요금이 포함된 고지서 제작비가 1820원이고, 일반우편 제작비가 320원인 것을 감안하면 모두 8560원이 소요된 셈이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 등기 발송은 지난 2008년 과태료를 기한에 내지 않을 경우 최고 77%의 가산금을 물리고, 정상 납부자에게는 20%를 경감해 주는 제도가 도입되면서 시작됐다.

하지만, 가난한 지자체가 일반우편의 10배에 달하는 금액을 지급하고도 반송으로 인해 애를 먹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우정사업본부는 등기우편 반송을 막기 위해 아파트나 다세대 주택, 빌딩 입주자들의 일괄 신청이 있을 경우 경비원이 등기우편물을 대리수령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극히 일부에서만 시행되고 있다.

한 자치구 관계자는 "지난해 광주시에서 합리적인 불법 주정차 단속 지침의 하나로 '주정차 위반 사전통지는 등기우편으로 한다'라는 지침이 내려왔다"며 "적발된 사람들과의 마찰을 최대한 피하고, 세원을 조속히 확보하기 위한 것이지만 힘든 점이 많다"고 말했다.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인화학교 성폭력 대책위 송년회'가 12일 광주시 광산구 월계동 한마음 장애인 재활센터에서 열렸다. 50여명의 참석자들이 공연을 관람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도가니 아픔 다시는 없어야"

인화학교 대책위 송년회

광주 인화학교 대책위원회가 12일 한해를 마무리하는 행사를 가졌다.

인화대책위는 이날 광주시 광산구 월계동 한마음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 대책위 회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인화학교 성폭력 대책위 송년회 희망'을 주제로 송년행사를 개최했다.

인화대책위는 인화학교 법인 우석의 법인 허가 취소와 도가니법 개정 등 지난 1년여의 성과를 되돌아보며 앞으로 인화학교 문제 완전해결과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을 다짐했다.

이날 행사는 인화대책위의 지난 7년여의 힘겨운 투쟁 과정을 주제로한 김영순 감독의 영화 '인화학교 투쟁' 상영을 시작으로 김용목 인화대책위 상임대표의 인사말, 장애인 밴드 '제멋대로'의 공연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행사 마지막에 제멋대로 밴드의 '만남'이 울려퍼지자 대책위 회원들은 일제히 일어나 박수로 한해를 마무리 했다.

김용목 인화대책위 상임대표는 "2011년은 개인적으로, 그리고 인화학교 대책위 전체에게 의미있는 해였다"며 "올해 절반의 성과를 통해 다가오는 새해 우리들의 목표를 위해 투쟁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한국인 성관계 주 1회

빈도수 세계 꼴찌 수준

포르투갈 평균 2회 1위

한국인의 성관계 빈도가 세계 최저 수준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글로벌제약사 한국릴리는 최근 세계 13개 국가의 34세 이상 남녀를 대상으로 성생활 패턴을 조사한 결과 한국인의 평균 성관계 횟수가 매주 1.04회로 가장 낮았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한국, 미국, 영국,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체코, 덴마크, 핀란드, 멕시코, 포르투갈, 루마니아, 스위스 등 13개국 1만263명을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한국인 응답자는 1005명이었다.

성관계가 가장 활발한 나라는 포르투갈로 매주 평균 2.05회였으며, 이어 멕시코 2.03회, 루마니아 1.96회, 오스트리아 1.53회, 벨기에 1.44, 스위스 1.43, 체코 1.38, 미국 1.37, 캐나다 1.26, 영국 1.23 등의 순이었다.

한국은 핀란드(1.21회), 덴마크(1.10회) 등과 함께 성관계가 드문 최하위 그룹에 속했다. 한국인은 파트너로부터 성관계를 회피 당한 경험이 48%로 세계 평균인 33%보다 높았다. /연합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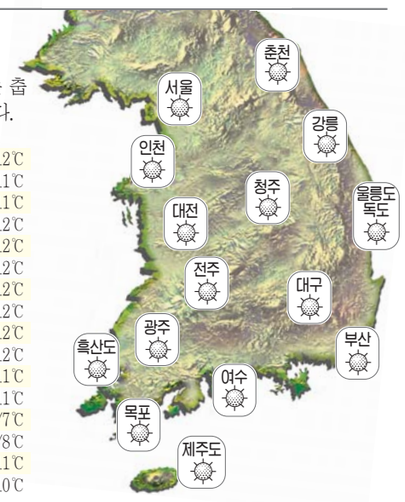
오늘 날씨

해뜸 07시 32분 해짐 17시 21분 달뜸 19시 55분 달짐 09시 22분

낮에는 풀려요

대체로 맑겠으나 아침에는 춥겠고 낮에는 조금 풀리겠다.

광 주	맑음	0/12℃
목 포	맑음	2/11℃
여 수	맑음	4/11℃
나 주	맑음	-2/12℃
완 도	맑음	1/12℃
구 례	맑음	-3/12℃
강 진	맑음	-1/12℃
해 남	맑음	-3/12℃
장 흥	맑음	-3/12℃
순 천	맑음	0/12℃
영 광	맑음	-2/11℃
진 도	맑음	-1/11℃
전 주	맑음	-1/7℃
군 산	맑음	-2/8℃
남 원	맑음	-5/11℃
흑산도	맑음	6/10℃



〈오전〉 바다	풍향	파고
서해 남부 앞바다	북~북동	0.5m
먼바다	북~북동	0.5~1.0m
남해 서부 앞바다	북~북동	0.5m
먼바다	북~북동	0.5~1.0m

체감온도	동파지수	뇌졸중지수
관심	보통	낮음

〈오후〉 바다	풍향	파고
서해 남부 앞바다	북~북동	0.5m
먼바다	북~북동	0.5~1.0m
남해 서부 앞바다	북~북동	0.5m
먼바다	북~북동	0.5~1.0m

	밀물	썰물
목포	03:19 16:04	08:39 21:22
여수	10:44 22:44	04:11 16:45

◇주간날씨 기상안내전화 :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 짜	14(수)	15(목)	16(금)	17(토)	18(일)	19(월)
날 씨						
최저/최고	2/9	-1/4	-2/2	-2/4	-1/6	-1/7

"봉사활동 중 찍은 장애인 사진 공개땐 인권침해"

국가인권위

봉사활동 기념촬영을 하면서 장애인의 모습을 동의 없이 찍어 공개하는 것은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12일 "장애인의 외모나 신체를 본인 동의 없이 촬영해 공개했다는 진정을 조사한 결과 이 같은 행위가 인권침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최근 자원봉사단체 등이 복지시설에서 목욕봉사를 하거나 후원물품을 전달하면서 당사자 동의 없이 장애인을 촬영하고 이를 일반에 공개했다는 진정이 증가하고 있다"며 "연말연시를 맞아 유사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진정인 A씨는 지난 8월 "B씨가 장애인시설에서 목욕 봉사활동을 하면서 장애인의 신체가 노출된 사진을 촬영해 블로그에 게시했고 시설장 이모씨는 이 같은 사진촬영 행위를 방치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연합뉴스